

5·18 진압 거부 경찰들 '갈길 먼 명예회복'

당시 경감급 이상 13명 시민 지키려다 파면 후 합수부서 고초 90일 구공·고문 당한 故 이준규 목포서장 39년만에 무죄 판결 안병하 국장 포함 2명 명예회복...경찰청 자료 부족 이유 11명 방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거부해 파면을 당한 고(故) 이준규(당시 총경) 전 목포경찰서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故) 안병하(당시 경무관) 전 전남경찰국장에 이어 두번째 명예회복이다.

다만 5·18 직후 고초를 겪은 경찰 중 수십여 명은 아직까지 명예회복은커녕 경찰 자체적으로도 자료부족을 핑계로 당시 역할을 제대로 내리진 장계조차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 차원의 '5·18 경찰 역사 바로잡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따르면 형사 2단독(부장판사 임효미)은 지난 11일 포고령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에 대한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서장의 행위 시기와 동기, 사용수단, 결과 등을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 21일 안병하 국장의 명령에 따라 구내 방송으로 "사위대를 향해 발표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밤 9시에 경찰서내 총기를 배에 실어 목포 고하도로 향한 뒤 5월 23일 오전 10시에 복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보안사령부는 1980년 5월 30일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職務遺棄 警察官報告) 문건을 작성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이 서장을 자위권 행사 소홀과 직무유기 혐의로 '계엄사에서 구속조사'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즉시 승인이 됐다. 이 서장은 파면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공·고문당한 끝에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이후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지난해 7월 6일 국가보훈처는 이 서장을 5·18유공자로 인정했으며, 이 서장의 사위 윤성식(65)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와 딸 이향진(60)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5·18연구자 등은 이 서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5·18 때 국민 생명을 지키다 고초를 당한 경찰을 전수조사해 명예회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1980년 6월 19일 작성한 '광주 사태와 관련된 문책대상 경찰관 조치'를 살펴보면 안 국장, 이 서장을 비롯한 안수택 전남청 작전과장·양성우 전남청 경무과장·김상훈 나주서장·김희순 영암시장(경정), 이경창 전남청 장비계장·이운권 화순서 경무과장(이상 경감) 등 간부 9명을 문책 대상으로 꼽고 있다. 5

·18 직후 직위 해제·파면·의원면직을 당한 총경급 이상 경찰 간부는 13명, 감봉 등 징계를 당한 직원은 64명에 이른다.

일부 유족은 경찰청에서 직접 복권(復權)이나 징계 취소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경찰 측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서장조차도 아직까지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서장의 유족은 경찰이 직권으로 파면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 교수는 "갑대 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신군부는 목포 시위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자 장인어른을 가장 가혹하게 처벌했다"며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후대가 기억할 수 있는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병하 국장의 아들 호재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본인 때문에 고초를 당한 부하 직원들을 안타까워했다"며 "지난해 경찰청에 아버지를 포함한 경찰의 명예회복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요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형제의 비극 씨앗된 '로또 당첨' 집까지 사졌던 형이 빛 독촉 갈등에 동생 살해

수년 전 당첨된 '로또 1등'이 우애 깊던 형제간 참극의 씨앗이 됐다. 로또 1등에 당첨돼 동생에게 집까지 사줬던 망명이 휘두른 흥기에 동생이 숨진 것이다.

13일 전주경찰에 따르면 동생에게 A(58)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10분께 동생 B(49)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의 가게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서장의 사위인 윤성식 교수는 "갑대 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신군부는 목포 시위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자 장인어른을 가장 가혹하게 처벌했다"며 "지자체나 경찰청에서 후대가 기억할 수 있는 명예회복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병하 국장의 아들 호재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본인 때문에 고초를 당한 부하 직원들을 안타까워했다"며 "지난해 경찰청에 아버지를 포함한 경찰의 명예회복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록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요야무야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나머지 당첨금을 투자해 정읍에 식당을 개업했지만, 결국 불행의 화근이 됐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됐으나 갈수록 경영이 악화될 뻔했다. A씨는 고민 끝에 과거 자신이 사준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600만 원을 빌려가게 제투자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A씨는 최근엔 동생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이차(월 20여 만원)마저 갚지 못한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는 이날 동생과 말다툼하던 중 흥기를 꺼내 동생의 목과 등을 수차례 찔렀다. B씨는 주변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조사와 주변 지인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들 형제는 평소 우애가 깊고 사이가 좋았다. 수년 전 A씨는 전주에서 구입한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한 8억 원 상당을 수령했고, 동생 B씨에게 집까지 사줬다. A씨는 다른 형제 2명에게도 당첨금 일부를 나눠줬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중학생 딸 살해' 의부·친모 징역 30년 선고

중학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난 11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만 12세의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김씨는 피해자를 추행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도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믿게 했다. 친모인 유씨는 자신의 딸에 대해 구체적인 살인 지시까지 한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께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딸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아 을료수에 타서 진탕에 먹고 승용차 안에서 남편 김씨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있다. 김씨는 아내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씨는 범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함께 계획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전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진 딸에게는 비난 메시지를 보낸 점, 공중전화로 딸을 직접 불러내 차에 태운 점 등을 볼 때 살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화순축협조합장 선거 역대 금품 돌린 후보·간부들 실형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역대 금품을 돌린 후보자와 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순축협조합장 후보 A(7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 임원 3명도 각각 징역 8개월~1년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조합 임원들과 조합원 등 7명에게 선거운동 목

적으로 총 98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친한 조합원들에게 잘 밑해서 도와달라"며 조합원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하거나 금품을 제공할 조합원 명부를 건네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들은 각각 2000만~3000만원을 받아 조합원 25명에게 각 50만~850만원씩을 전달했다. 이 사건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전달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의혹이 있다며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파업 일리는 송정역 13일 오전 광주송정역 전광판에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노조는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건강검진 한차례도 안 받은 광주·전남 영유아 7821명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광주·전남지역 영·유아가 78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단 한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광주 4143명, 전남 3678명으로 집계됐다.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율은 광주 5%, 전남 4.1%로 전국 평균 5.4%보다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강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는 광주 3만 7663명, 전남 4만 1181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유아검진은 생후 4~7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검진은 1~7차, 구강검진 1~3차로 구성돼 있다. 영유아검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문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장전상 수상
- MBC - TV 방송공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옹보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의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1. 공매목적부동산: 전남 목포시 죽복동2가 1-1 동명도메이시점 104호 및 126호

종목	소재지	호수	전적면적	건물면적	전용	공용	계약	대지권
판매	전남 목포시 죽복동2가 1-1 동명도메이시점	104호 및 126호	2,987㎡	3,542	3,251	6,792	2,814	

2. 차수별 입찰일시 및 최저 입찰가격 (단위: 원, 부가세포함)

회차	입찰 일시	토지가격	건물가격	부가세	합계	최저 입찰 가격
1차	2019.10.21 (월) 10:30	380,952,380	380,952,381	38,095,239	800,000,000	-
2차	2019.10.21 (월) 14:30	342,857,142	342,857,143	34,285,715	720,000,000	-
3차	2019.10.22 (화) 10:30	308,571,428	308,571,429	30,857,143	648,000,000	10%
4차	2019.10.22 (화) 14:30	277,142,857	277,142,858	27,714,286	582,000,000	10%
5차	2019.10.23 (수) 10:30	249,942,857	249,942,857	24,994,286	524,880,000	10%
6차	2019.10.23 (수) 14:30	224,948,571	224,948,571	22,494,858	472,392,000	10%
7차	2019.10.24 (목) 10:30	202,453,714	202,453,714	20,245,372	425,152,800	10%
8차	2019.10.24 (목) 14:30	190,476,191	190,476,190	19,047,619	400,000,000	약 6%

3. 입찰에 관한 사항

가. 공매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금융센터 20층

나.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의 성립·입찰공매대상물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단독입찰도 유효함)이다. (본 잔액 물건(127개호)에 대한 입찰일시 가능함)

다.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가격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중 최고가격을 가장 높고 가격을 가장 낮고 유찰할 경우 전 차수 공매대상물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라. 취소 등 해산: 본 입찰은 당사 사정 발생 시 별도 공고 없이 공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거나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매대상물 및 입찰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단, 입찰자는 사전에 당사로부터 입찰 심사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심사 후 폐기된 입찰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또한, 낙찰된 후 폐기된 입찰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입찰 심사 후 폐기된 입찰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입찰 심사 후 폐기된 입찰금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4. 입찰서류

가. 낙찰자 결정: 최저 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가격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중 최고가격을 가장 높고 가격을 가장 낮고 유찰할 경우 전 차수 공매대상물과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가격 입찰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라. 대리인: 위임장(위임인 남)과 입찰 및 대리인 신분증(본인 지참).

5. 입찰보증금

입찰금의 10% 이상 현금 또는 공금(계좌입금) 형태로 발행한 자기자금이다. 추심료가 소요되는 자기자금의 추심료는 낙찰자에게 있다. 입찰보증금의 동등하여 제압정당금에 해당하며, 입찰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6.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또는 신고대상물건은 주공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사 소정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입찰 계약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에게 위임(신탁)채권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위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공매에 의해 소